

車부품 국산화 임주섭, 지역 고용창출 박준흠 ‘금탑훈장’

〈단체 대표〉

〈한황산업 대표〉

대한민국 中企人 대회

중기부-중기중앙회 개최
금탑 2점, 산업훈장 15점 등 수훈
김부겸 총리 “中企 피해구제 주력”

단체 임주섭 대표, 한황산업 박준흠 대표가 기업인으로는 최고 영예인 금탑 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유호전기공업 유문영 회장, 에스피엘 허상호 대표, 코츠김용수 대표는 은탑산업훈장을 각각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경제 발전에 노력한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를 열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 중소기업’이라는 주제의 올해 중소기업인 대회는 32회째다. 이날 행사에는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해 중소기업인 80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중소기업인 대회에선 모범중소기업인, 모범근로자, 육성공로자, 우수단체에게 금탑 등 산업훈장 15점을 비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2021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렸다. (왼쪽 여섯번째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준흠 한황산업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 임주섭 단체 대표, 유문영 유호전기공업 회장,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롯해 산업포장 12점, 대통령 표창 32점, 국무총리 표창 33점 등 정부포상 92점이 수여됐다. 또 장·차관급 표창 296점도 함께 수여됐다.

단체 임주섭 대표는 공기압기기 국산화를 통해 약 1조원의 수입 대체효과와 2000억원의 수출을 달성하는 등 자동차 부품 산업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았다. 특히 모션컨트롤·3D프린터 등 ‘스마트팩토리 융합 솔루션’을 개발해 4차 산업혁명에 기여했다.

한황산업 박준흠 대표는 전기전자,

조선, 기계 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형 일자리 만들기 등 고용 활성화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1973년 회사 창립 후 1981년부터 가업을 이어받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신공법 개발 및 기술 인증을 통해 국내 주물산업계 발전에 힘써왔다.

김부겸 총리는 금탑(2명), 은탑, 동탑, 철탑, 석탑, 산업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중소기업인 대표 9명에게 직접 포상을 전수했다.

김 총리는 축사에서 “정부는 코로나

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구제와 신속한 경기회복에 최우선으로 주력할 계획”이라며 “중소기업인들의 자금난에 대비해 지난해에 310조원, 올해는 추경을 통해 14조1000억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이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코로나 이후 시대 경제 재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을 힘차게 추진 중”이라며 “특히 ‘DNA’라고 불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산업과 ‘BIG3’인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데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중소기업인 대회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열렸다. 이에 따라 전국 13개 권역 대표 중소기업인 등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한편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전국 중소기업인, 소기업·소상공인, 유공자가족 등이 현장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경제의 버팀목으로 중소기업들이 보여준 저력은 대한민국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켰으며 세계 시장에서의 선도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서 “코로나 위기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의 민생안정과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에 주안점을 두고 현장이 원하는 정책,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 미래를 대비하는 혁신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대회에선 본행사와 함께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이뤄낸 중소기업이 진정한 ‘챔피언’이라는 의미로 비대면 어린이 합창단이 조수미의 ‘챔피언’을 부르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다시 한 번 다짐했다.

수상자들은 또 중소기업의 사회공헌에 동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1억5000만 원 가량을 모금하기도 했다. 이 기부금은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회를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금 국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온 과거처럼, 우리 중소기업들은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CJ대한통운, AI·빅데이터 전문가 키운다

임직원 수백명 대규모 양성
플랫폼·데이터분석 기초 등 진행
“물류 디지털 전환으로 초격차”

CJ대한통운이 임직원들을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전문가로 키운다.

CJ대한통운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AI·빅데이터 전문가 양성 과정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는 IT, 데이터 관련 업무 담당자를 비롯해 계약물류(CL), 택배, 이커머스 등 실무자 200여명이 참여해 지난 5월12일부터 시작해 이달 중순까지 약 한 달여간 진행한다.

IT기업도 아닌 물류기업이 수백명 단위의 대규모로 AI와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교육과정은 ▲플랫폼 기초과정 ▲데이터 분석 기본과정 ▲데이터 분석 심화과정 총 3개 세부 프로그램으로 꾸려졌다. 교육 참가자들은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의 기본 개념과 이해,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업무상 필요한 데이터 탐색 및 분석 실습 등의 내용을 학습한다.

특히 국내의 선진기업이나 물류업계, CJ 그룹사 등의 AI·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비롯해 향후 실무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무 교육도 진행한다.

CJ대한통운은 최근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수집과 분석용 AI·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을 끝냈다. 소프트웨어 차원의 기반 마련을 마친 만큼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양성해 실무차원에서부터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J대한통운은 AI·빅데이터 교육을 정례화하고 기본과정 외에도 심화과정을 확대해 임직원의 전문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정보전략팀 류상천 상무는 “전 사업부문에 걸쳐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초격차 역량 확보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중소유통센터-NH농협銀, 상생결제 ‘맞손’

신용도로 외상매출 채권 발행

중소기업유통센터가 NH농협은행과 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한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일 중소기업유통센터에 따르면 상생결제 제도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해 중소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의 높은 신용도를 바탕으로 외상매출채권을 발행해 협력사가 결제대금을 초저금리로 현금화할 수 있는 대금지급시스템이다.

중기유통센터는 지난 2019년에 상생결제시스템을 처음 도입한 뒤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과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각각 체결했다. 이



(왼쪽부터) 중소기업유통센터 이형태 경영지원실장과 NH농협은행 김관수 강서사업부 본부장이 상생결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유통센터

번 NH농협은행이 5번째다. 협약에 따라 중기유통센터는 NH농협은행과 함께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는 유기적인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IT 등 신기술 中企, 6개국 수출길 ‘활짝’

중진공, 기술교류 상담회 개최
해외 바이어 300여 개사 참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일본, 중국 등 6개국과 중소기업들의 해외 신기술분야 기술 수출 지원에 추가로 나선다.

중진공은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서울 구로구 웨라톤서울디큐브시티호텔

에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지원을 위한 ‘2021년 G-TEP 기술교류 상담회 및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상담회에는 바이오, 정보기술(IT),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41개사가 참여해 러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일본, 중국, 카자흐스탄의 기술 바이어 300여개사와 온라인 상담을 진행한다.

중진공은 현지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 수요를 사전 조사해 기업 간 기술 매칭을 진행했다. 또 상담 이후 계약서 법률검토, 통번역, 기술사업화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기술수출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첫 날엔 ▲데이터로 말하는 수출 전략 ▲기술거래 협상 실무 ▲해외 산업 기술 유출 대응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유튜브로도 생중계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자이글, 다기능 빅사이즈 ‘홈와플팬’ 출시

자이글이 홈쿠팡에 적합한 다기능 빅 와플팬을 선보인다. 자이글은 홈카페, 홈베이커리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이글 홈 와플팬(사진)’을 출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자이글 홈 와플팬은 기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요소를 수렴해 만든 제품이다. 제품 크기는 기존에 출시한



타사 제품 대비 2배 가량 커진 20cm다. 또한 가스레인지, 핫플레이트, 하이라이트, 인덕션 등 모든 열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게 해 열원에 구분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팬 마블5중 코팅으로 구성돼 내구성이 좋고, 긁힘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잘 눌러 붙지 않고, 조리팬이 2개로 분리돼 설거지도 편리하다. /김승호 기자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YG, 양현석 또 재판행... ‘비아이 마약 의혹’ 무마 혐의 기소 /사진 뉴시스
▲ 성추행 피해 사망 여군 측 “조력 안한 국선번호인 고소”

▲ 반복되는 軍성추행... 변협 “군인권 보호, 민간에 맡겨야”
▲ ‘바람 잘 날 없는’ 광주시청 또 압수수색 ‘수모’...민선 7기 6번째



▲ 눈 파고 담뱃불 지지고 ‘동물학대’...기소율 고작 10%
▲ 테슬라, 최고급 세단 ‘모델S 플레이드+’ 출시 취소 /사진 뉴시스